

Koreanisch

하느님의 아들 -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분

사목 담화문

2025년 사순 시기

게오르그 뱃칭 림부르크교구 주교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루카 9, 35)

사랑하는 신앙의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반 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목 담화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약 1,700년 전 그 기초가 세워지고 수십 년 후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확립된 ‘신앙 고백’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대신경’으로 불리며, 교회 공동체와 개별 신자들의 신앙 여정에 견고한 뿌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텍스트는 성가책 『Gotteslob』 586.2번 항목에서 독일어와 라틴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니케아 신경(Nizänisches Glaubens-bekennntnis)’이라고 하며, 그리스어로 처음 작성되었습니다. 그 언어적 배경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적 전환 이후의 일치 추구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로마 황제로서는 최초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교 편에 섰으며,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오랜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는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주교들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그의 의도는 순전히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교회의 일치를 통해 로마 제국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일치는 격화되는 분쟁으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립은 대략 318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되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리우스(Arius)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는데, 이는 하느님의 ‘유일무이함’과 ‘비교 불가능한 절대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의 성서적 하느님 신앙과 그리스 철학이 전달해 준 유산이었지요. 아리우스에 따르면, 하느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와 함께 존재할 수 없고,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첫 번째이자 완전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활용하는 도구적 존재에

마
하
하
하
하
하
하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은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높은 수준의 철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당대 지식인들이 통용하던 사상적 기준에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육화) 개념 자체를 너무나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도 이를 공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아리우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공통 기반을 지키라고 요청했음에도 분쟁은 가라앉기는 커녕 오히려 더 커져 갔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교회 역사상 첫 번째 보편 공의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325년 초여름, 약 250여 명의 공의회 참가자들이 당시 황제의 궁전 근처인 니케아(현재 터키 부르사 주의 이즈니크)로 모였습니다. 공의회는 황제와 로마 주교(교황)의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치열한 논의 끝에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의 주장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이에 맞서는 교의를 ‘신앙고백’의 형태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신앙고백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진술에 담겨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는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신 분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온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온 참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낳으심을 받은 분 (gezeugt)’ 이지 ‘창조된 분 (geschaffen)’ 이 아니며, 아버지와, 동일본질 (wesensgleich)’ 이십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동일본질’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직접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언어와 사유 방식을 차용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아들’을 단순히 상징적 표현으로만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참되게 하느님과 동등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니케아 공의회 결정 이후에도 이른바 ‘아리우스주의’ 논쟁이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 이 초대 공의회 결정은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의 신앙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중요한 공동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마
히
함
메
스

니케아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니케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신앙고백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부활절을 '봄에 맞이하는 첫 보름달이 지난 뒤 맞는 첫 번째 주일'로 정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정교회와도 같은 날 부활절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공의회의 해를 기념하는 이 해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날짜에 함께 부활절을 지키도록 힘쓰는 새로운 움직임을 후원하는 일이 매우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결정 또한 니케아 공의회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하느님이자 참사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드러내는 '외적 표현', 즉 축제의 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원으로 돌아가기 -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사랑하는 신앙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면, 이제 왜 우리가 1,700년 전의 사건을 오늘날 굳이 되짚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역사적 흥미 이상의 의미가, 당시의 사건과 결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신앙

이런 맥락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23년에 발표된 신앙 실태 조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자들의 동의율이 이전 조사들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이 문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3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를 사회 전반의 세속화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존재가 무의미해진 결과라고 볼 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근원’(Origin)에서부터 살아가며, 그 근원을 알 때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교회, 구원과 죄 사함,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 기도와 성사(聖事),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찬란한 전망에 관한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풍요롭고 유익한 체험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는 결국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히
하
하
메
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격적 신(神)'에 대한 이해가 희미해짐에 따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내용 또한 우려스러울 정도로 희석되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 아니 우리 각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셨으며, 지금도 누구이신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인물, 예언자, 나자렛 출신의 랍비,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거인 등 예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은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큰 공감을 얻고 있음을 각종 조사 결과가 거듭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한 사람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 -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는 4세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교이자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는 니케아 신앙고백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에서 당대 세계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 곧 트리어까지 두 번이나 유배를 떠날 각오를 할 정도로 확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의회를 결정을 옹호하며 세 가지 깊은 이유를 들었는데, 우선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참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실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단지 여러 중재자나 예언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면, 하느님에 대해 전해줄 수는 있어도 하느님 자신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일 하느님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삶과 하느님 나라 선포,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인류가 진정으로 구원과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하느님이 아니셨다면, 죄와 잘못에서 치유되고 새로운 내적 자유와 새로운 하느님과의 관계를 얻게 해주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결국 잘못된 믿음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
히
하
하
메
하

마지막으로,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참하느님이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는 행위는 우상숭배가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나누는 대화나 그분께 드리는 경배와 기도가 아무리 마음을 정화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심리적 효과를 낳더라도, 우리 인간과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 곧 삶의 토대요 목적이 되시는 분을 참으로 잇는 가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논점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노달리타스(Synodalität)의 문화와 공동의 그리스도교적 증언

당시 매우 긴급했던 우리 구세주의 본성과 기원에 관한 질문 외에도, 니케아 공의회를 돌아볼 만한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교회사에서 중요한 신앙 문제들, 기본적인 윤리적 태도들,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한 교회의 방향성 등을 두고 줄곧 갈등과 토론이 있어 왔음을 잘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논쟁은 교회 안에서도 늘 있어 왔고, 오늘날 역시 우리의 질문들을 제기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노달리타스’라는 문화와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서로 경청하고 분별하여 신앙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해 나가면서, 동시에 교회의 일치를 지키거나 혹은 되찾도록 하는 것이지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열린 세계주교시노드(이른바 ‘세계 시노드’)의 논의 결과들이 이제 세계 교회의 모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 노력이 긴 역사를 지닌 전통 위에서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문제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러한 기대를 품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적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21)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사회 여러 단체와 정치적 책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자주 체감합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파의 벽을 넘어 세상의 정의와 사람들의 결속,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에서 비롯된 지향점을 제시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양한 교파가 더욱 많은 공통분모를 찾고, 분열을 넘어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려는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노력은 오늘날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신앙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사랑하는 신앙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 생활을 위해 애쓰시고,
무엇보다도 각자 삶으로 신앙을 증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깊이 성찰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사도신경(Credo)에서 말하는 진술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과 연관 지어 생동감 있게 실현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을 건네십니까? 사도신경을 바칠 때면, 저는 이
고백 안에 담긴 신앙의 깊은 조화로움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대신경'은 전적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흔히 낭독 대신 노래로 바쳐지곤 하지요. 우리의
활기 넘치는 신앙 자체가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사순 제2주일, 림부르크에서

여러분의 주교

대 (大) 신 경 또 는 니 케 아 - 콘스탄티노플 신경

한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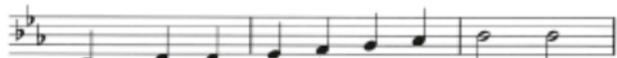
기도로의 초대

- ① 그리스도, 주 하느님,
사랑할 힘을 지닌 모든 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모르는 이들은 무의식중에,
당신을 아는 이들은 갈망으로 당신을 찾습니다.
- ②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희망이시며
나의 평화, 나의 기쁨, 나의 모든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여, 제 정신과 마음이 당신께 기울어지오니,
그리스도여, 제가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 ③ 그리스도여, 제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께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을 찾아 당신을 따르나이다..

T: Stundenbuch nach „Christe Deus, vitae verae fabricator“, Alphanus von Salerno (+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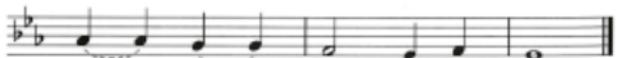
1 Chri - stus, gött - li - cher Herr, dich
2 Chri - stus, du bist mei - ne Hoff - nung, mein
3 Chri - stus, an dir - halt ich fest mit der



1 liebt, wer nur Kraft hat zu lie - ben:
2 Frie - de, mein Glück, all mein Le - ben:
3 gan - zen Kraft mei - ner See - 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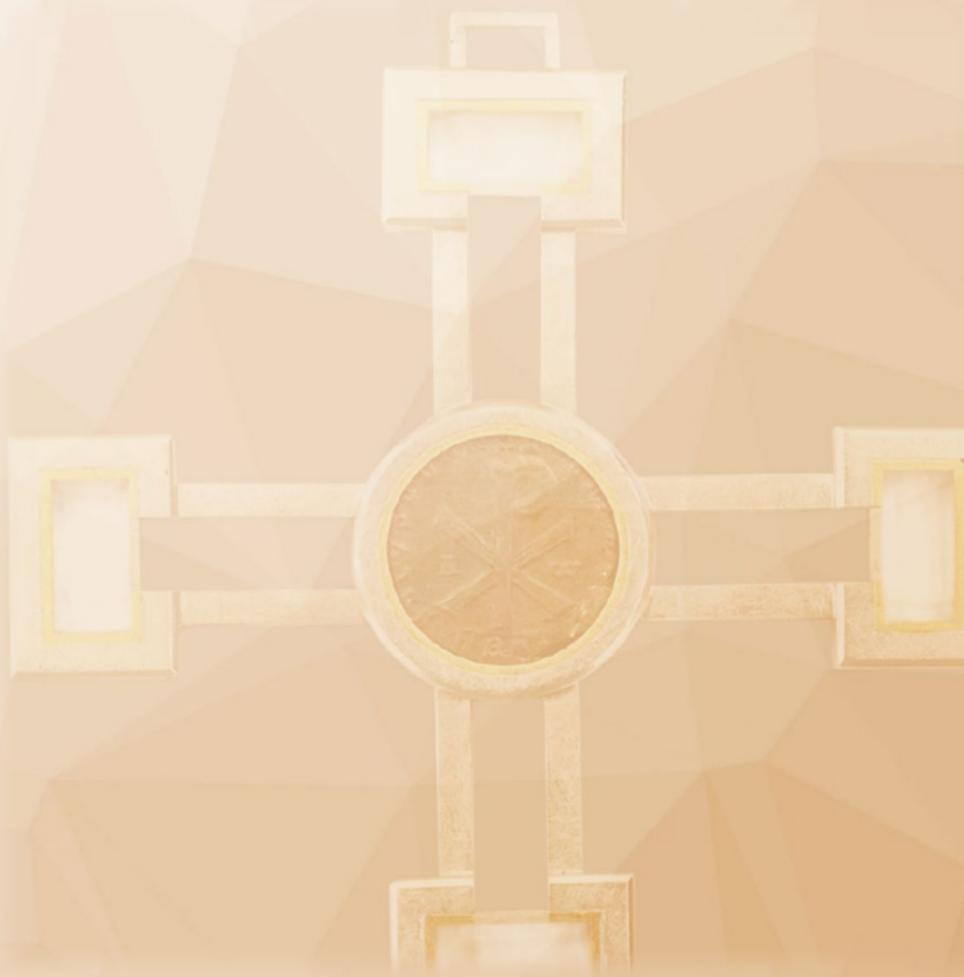


1 un - be - wusst, wer dich nicht kennt;
2 Chri - stus, dir neigt sich mein Geist;
3 dich, Herr, lieb ich al - lein,



1 sehn - sucht - voll, wer um dich weiß.
2 Chri - stus, dich be - te ich an.
3 su - che dich, fol - ge dir nach.

T: Stundenbuch nach „Christe Deus, vitae verae fabricator“,
Alphanus von Salerno (+1085), M: Barbara Kolberg 2008



Übersetzung der Ausgabe:
„GOTTES SOHN – MENSCH FÜR UNS“
HIRTENWORT
zur Österlichen Bußzeit 2025
von Dr. Georg Bätzing, Bischof von Limburg